

모의고사 출제 의도 : 6월, 9월 평가원과 단원별 문제비율은 최대한 비슷하게 출제 하였고  
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흔히들 말하는 '평가원  
스럽지 않은' 문항을 중점적으로 대비하고자 제작하였다.

출제 근거 :

2번 : 보크사이트가 금속광물 자원인 것은 수능완성에서 다뤄진 내용이다.

6번 : ㄴ. 해령의 정의는 깊은 바다에 있는 길고 좁은 산맥 모양의 솟아오른 부분이다.

(나) 그림에서는 솟아오른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다.

7번 : 수능특강에서 다룬 선지 내용이다.

10번 : ㄷ. 상공이라는 표현은 수능완성 문제에서 언급한 표현이다.

12번 : A, C는 종관 규모에 속하므로 비슷한 시간 규모를 가진다.

15번 : 수능완성에서 다룬 내용이다.

ㄷ. 빙하기 간빙기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해수 속의 동위원소비가 높다.

16번 : ㄱ. 지2 내용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지1 수능특강에서 다뤄진 선지이다.

ㄷ. 2015년 6월 평가원에서 다뤄진 중요한 선지이다.

18번 : 남반구는 천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 평가원에 단 한번 등장했으나, 남반구의 해류를 묻는 문항 등 기본 개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. 출제자 역시 남반구에 대한 특징을 수업을 통해 들은 적이 없기에 기본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이다.

남반구에서의 천체의 일주운동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추론 가능한 내용이므로 지1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제하였다.